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수안 스님 (통도사 축서암 주석)



국내외 수많은 전시회 열어, 불우어린이 장애인 등 돕기 앞장

수안 스님은 1940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57년 석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64년 월하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하고 통도사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수선안거. 1979년 이리 이재민 돕기 선묵전, 1985년 프랑스 파리 초대전, 1986년 중앙승가대 건립기금 마련전 등 독일 러시아 모로코 대만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불우어린이, 장애인 등 딱딱한 삶을 살아가는 중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놓는데 주저함이 없다.

통도사 축서암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첫 마주치는 스님의 작품. 스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 작품이 된다.



선서화의 가장 수안 스님의 환한 미소는 문수동자를 닮았다.

그림 속 문수동자 닮은 웃음

계엄령 경계위해 그림 시작... 거침없는 선과 색 '선서화 대가'  
매일 요가로 심신 단련, 법문할 땐 '우리 소원은 성불'로 마무리

선서화(禪書畵)의 가장 증맬 수안 스님. 누가 '증맬(스님의 호)'이 뭐냐고 물었더니 수안 스님은 큰맬, 작은맬 사이에 증간맬 돌이라고 답했다. 수안 스님의 유머는 늘 이런 식이다.

수안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화계사에서 법문을 했다. 감칠맛이 절로 나는 감로법문이 한 시간 반여를 이어지는 동안 신도들의 배꼽을 서너 번 뺐다. 법문이 끝날 무렵에는 박수를 많이 쳐야 엔도르핀이 생긴다며 신도들을 당신의 '박수부대'로 만들었다. 그것도 성에 안착하지 끝내 '우리의 소원은 성불'을 한국 거창하게 뽑고 서야 법좌에서 내려 오셨다.

이튿날인 24일, 양산 통도사 축서암으로 스님을 찾아뵈었다. 첫 만남부터 까다로웠다. 기자가 삼배를 올리는데 짚을 하는 손에 정성이 없다고 불호령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냥 경상도 할배였다. 손끝에 힘을 주고 정성을 다하라며 시범까지 보였다. 그러나 이후 스님은 소탈하면서 편진한 모습을 내내 유지했다. 흔히 갖게 되는 편견, 예를 들면 예술가는 괴팍스럽다는 이미지를 전혀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스님은 수좌생활을 오래 하셨다.

수안 스님의 그림과 전각작품을 보고 있으면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경지는 절대 아님을 느끼게 된다. 스님의 상징이 된 '안(眼)'자 서명은 만년의 세월을 이은 상행문자와 전서의 결합이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감각이 숨어있다. 거침없는 먹선 하나, 글씨 한 획, 채색 한 번도 예사로 하지 않는 꼼꼼함을 발견할 때면 질려버릴 정도다. 국내외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킨 스님의 선서화는 오메카(五色彩)를 사용한다. 감칠한 원색은 아무나 쉽게 사용하기 힘든 까다로운 색. 그러나 스님은 선서화에 채색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선서화는 맑고 깨끗한 선의 맛(風味)이 느껴져야 한다"는 수안 스님은 "오랜 세월 꽃과

나무 바위처럼 자연 속에서 보아온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뿐"이라고 말한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자연은 가장 훌륭한 내 그림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스님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짧은 시절 앞았던 병 때문이었다. 수안 스님은 열일곱에 출가했다. 코흘리개 시절 절과 인연을 맺었지만 즐기는 생각에 본적도 없었다. 어느날 보니 자연스럽게 사발염의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만약 누가 스님에게 "출가하라"고 권했다면 바로 절에서 뛰쳐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 선방을 돌며 선지식을 찾아다니던 젊은 시절, 수행의 이력이 불기 시작하자 내심 100일 정도만 바짝 용맹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한겨울 아무도 살지 않는 산중토굴을 빌려 쉴 한달, 소금 한 되를 짚어지고 정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마(睡魔)는 참기 어려운 난관



악필(撥筆)로 그리는 문수동자의 해맑은 웃음.

이었다. 수마를 쫓기 위해 매일 산위 계곡의 얼음위에서 맨발로 서서 고행을 시작했다.

수안 스님은 당시를 "명칭해서 길을 가도 죽는 길로만 갔다"고 회고했다. 예정된 100일이 가까워 오니 냉기가 발끝에서부터 오장육부에 전해져 성불은커녕 하반신을 제대로 쓸 수 없을 만큼 몸을 해치고 말았다.

한편 망가진 몸은 선원 대중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하는 수 없이 산사를 찾아가 요양을 시작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몸을 써서 수행하는, 신라 유가종의 수행법도 익혔다. 건강을 거의 회복한 지금도 매일 요가로 몸을 단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됐다.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선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세졌던 신도가 결혼 후 독립로 유학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보탬을 하고 싶어졌다.

첫 작품은 초가집과 소나무였다. 그림 한편에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이라 구름 걸리면 청산인 것'이라고 선종 고련의 선사도 그럴 듯하게 써넣었다. 그해 연말에는 강진 백련암에서 아는 지인들에게 활짝 웃고 있는 신라의 인면(人面)을 그려 연하장으로 보냈다. 못하지 않게 그린 연하장은 당시 많은 이들의 화제가 됐다.

1979년 이리역 폭파사건 피해자를 위한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을 내면서 본격적인 선서화가로 세상에 이름을 냈다.

수안 스님은 요즘도 잡지, 신문, 전시회 등을 가리지 않고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을 그려준다. 이 세상이 내 전시관이요 내 그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탁탁탁 떨어버린다는 생각에서다. 수안 스님의 그림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문수동자상은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문수보살의 상호를 직접 보고 형상화 한 것이란다.

실천과 지혜를 상징한다는 그림속 문수동자를 보면 불수록 웃고 있는 수안 스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글=조용수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 경상도 : 010-7638-1117  
강원도 : 019-396-1110 | 전라도 : 010-2311-0157  
충청도 : 010-8674-23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靴 靴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중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황금 실리곤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찰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 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점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